

## 내포시대 충남 비전

# 지역구조 재편과 개발 전략

강 현수 (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)

### 1. 서론

- 1932년 충청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후, 80 여년이 지난 2012년 말 충청도청이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임.
- 충청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는 이번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, 충남 도민의 통합과 더불어 그동안 낙후되었던 충남 서부권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, 경부축 중심의 충남 지역 구조를 새롭게 개편 하는 등 충남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임.
- 이 글에서는 충청도청 이전을 충남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충남의 지역 발전 정책 방향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들을 제안하고 함.

### 2. 정책 및 여건 변화

#### 1) 시대적 전망과 여건변화

##### □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저성장 시대의 도래

: 고성장 시대 부동산 개발 위주 개발 정책의 한계 봉착

○ 우리나라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

-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, 출산율은 2011년 기준 1.23명으

로 세계 최저 수준임

- 저출산 ·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듦에 따라,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시대가 도래됨

○ 경제의 저성장과 동시에 최근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 했던 각종 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있음

- 입지 환경과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개발 사업도 속속 중단되고 있는 실정임 (서울 용산 개발, 인천 송도 개발 등)

○ 기존의 부동산 개발을 통한 지역 개발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면서, 기존 개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

-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개발 방식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을 전제로 한 외부 자본 유치 방식이었으나,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이러한 방식의 자본 유치를 기대하기 힘들어짐

○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세제가 주 수입원인 지방재정에도 타격을 줌

※ 충남에 주는 시사점

- 충남 내 각종 개발사업, 특히 충남도의 역점 사업인 내포 신도시 개발,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등이 난관에 빠질 수 있음.

- 충남에서도 무분별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부동산 개발 방식의 개발 계획을 축소하고, 현실 사정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실 있고 실효성 높은 개발을 추구해야 함.

## □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가능성

: 친환경,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지역 정책 필요

○ 지구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효과에 의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구 전체의 기후안정성이 약해지면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

○ 화석연료 고갈 위기 속에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

- 현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자원의 고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보가 울리고 있음

○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와, 자원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, 온실가스와 탄소발생량을 저감하려는 정책의 필요성이 세계적 과제로 대두

- 환경 및 자원 위기가 국제적인 정치·안보 문제로 비화

- 온실가스와 탄소발생량을 줄이면서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태양열, 풍력,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음

○ 최근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 체계에서, 지역 분산적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하고, 화석 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원을 전환하는 이른바 “에너지 전환”이 산업 및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

※ 충남에 주는 시사점

- 현재 충남은 화력발전소, 철강,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중 입주해 있는 관계로 국내 16개 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음

-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에서,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함으로써, 지구 환경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은 물론 충남의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

□ 중국 경제의 부상 및 환황해권 경제권의 도래

: 중국 및 서해안과 접하고 있는 충남의 새로운 가능성

○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

- 중국, 일본,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 중심축의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

○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산업 연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, 대외 무역에서도

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됨

-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액이 급증하고 상호 경제의존도도 증대하면서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

※ 충남에 주는 시사점

- 중국 경제의 성장 및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증대함에 따라, 중국과 물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충남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

#### □ 충남과 수도권의 연계성 강화

: 수도권과 충남이 연계된 거대도시권 형성 가능성

○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

- 수도권은 이제 서울, 인천, 경기를 넘어서 충청권 북부 지역, 강원권 서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

○ 세종시 건설, 수도권과 충남을 연결하는 KTX 및 고속도로 망 확충 등으로 충남 지역과 수도권의 접근성이 개선되고, 기업 활동 및 일상 생활 연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.

- 수도권에 잔류하는 중추행정기능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추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교류 연계도 강화될 것임.

○ 수도권과 충남 사이의 연계가 강화되면서, 수도권과 충남, 세종시를 포괄하는 거대도시권 - 대수도권 - 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

※ 충남에 주는 시사점

- 충남 전체가 수도권에 편입되면서, 충남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으나, 동시에 자칫 중추관리기능이나 고부가가치 기능은 수도권에 의존한 채 저부가가치 분공장 경제 구조로 전락할 위험도 상존

- 세종시 건설 및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기간 교통망 건설을 충남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

## 2)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

### □ 정권 교체기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불확실성 증대

○ 2012년 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,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중앙정부 지역 정책의 방향도 새롭게 전개될 것이 예측됨

○ 현 정부 지역정책의 핵심인 5+2 광역경제권 제도의 수정이 예측됨

-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의 핵심인 5+2 광역 경제권 정책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,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됨

- 광역경제권 보다 작은 단위인 도시권 (City Region)을 강조하는 정책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

- 일각에서는 5+2 광역경제권을 더 확장하여 수도권, 강원권, 충청권을 포괄하는 중부경제권과, 영남과 호남을 포괄하는 남부경제권이라는 두 개의 경제권으로 묶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

○ 수도권 규제 논의도 대선 과정에서 쟁점 예상

- 그동안 충남의 산업 발전 및 기업유치에는 수도권 규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.

-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수도권 규제가 계속 완화되어 왔음.

- 올해 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, 선거 이후 탄생할 새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됨

※ 충남에 주는 시사점

- 광역경제권 정책이나 수도권 규제 정책의 변화는 충남의 지역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

## □ 복지 수요의 압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역 개발 지원 예산 축소 예상

○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저성장 시대 도래의 영향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 수요가 증대하고, 복지 분야에 중앙정부의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면서, 지역 개발 분야에 돌아갈 중앙정부 재정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

- 세계 경제의 위기와 저성장 시대가 맞물려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 중 지역 개발 분야의 재정 긴축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.

○ 앞으로 지역 개발 분야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, 대신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

- 또한 지방분권이 시대적 대세이므로, 지역 개발 분야에서도 지방분권이 강화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임

### ※ 충남에 주는 시사점

-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 개발 계획을 여러 군데 무분별하게 펼쳐 놓기 보다는,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이 집중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

## □ 중앙정부 지역 지원 제도의 정비 예상

○ 현재 광역개발권역, 개발촉진지구, 특정지역, 신발전지역, 해안권 및 내륙권 등 다양한 지역개발 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,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유사·중복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절차의 장기간 소요로 민간투자가 부진하며, 기관·부서간 조정기능 미비 등으로 실제 지역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됨

- 이러한 문제 인식에 의거하여 지역개발 관련 제도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<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> 제정안이 2011년 3월에 입법 예고된 바 있음

○ 대선 이후 지역개발 관련 중앙정부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가시화될 것임.

- 대체적으로 합의된 방향은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부서간 통합 조정을 강화하며, 지역 개발에 있어서 지역 주도 및 민간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임

※ 충남에 주는 시사점

-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역개발 정책 대신, 충남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역 개발 정책 개발이 필요

### 3) 충남의 여건변화

#### □ 내포 신도시로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충남 지역 구조의 개편 예상

-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되고 내포 신도시 건설 계획이 원래 목표대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, 현재 경부축 중심의 충남 발전 축이 서해안 쪽으로 이동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
- 내포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, 세종시, 천안·아산 등과 삼각 발전축을 이뤄 충남의 새로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
- 또한 내포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, 충남 서북부 지역 발전지역의 파급효과를 남쪽으로 확산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임
- 내포 신도시 이전으로 인해 충남도청으로부터 거리가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충남 남동부 지역인 금산군, 논산시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

#### □ 세종시 건설의 파급 효과 가시화

- 세종시 건설 및 중앙행정기능의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, 세종시 건설의 파급효과가 조만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임
- 2012년 말부터 중앙정부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됨에 따라, 중앙정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, 이와 관련된 각종 산업 및 종사자의 동반 이전이 뒤따를 것임
- 세종시 건설로 인해 인근의 충남 지역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

- 또한 세종시로 이전한 기능과 수도권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능들 사이의 교류가 필요함에 따라, 전체적으로 충청권과 수도권 사이의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
#### □ KTX를 포함한 충남의 새로운 간선 교통망 구축

- KTX 호남선, 서해안 철도, 제2 경부고속도로 등 충남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 교통망이 구축되면서, 충남 지역 구조가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예상됨
- 지금까지 경부 축 일변도의 충남의 기간 교통축이 다변화되면서, 충남의 지역 발전 속도 다변화 될 것으로 기대됨

### 3. 충남의 정책 방향

#### 1) 기본 방향과 정책 목표

#### □ 중국 교류 중심지 역할 강화

- 중국과 한국의 경제 교류가 증진되면서 한중 분업 구조가 자리잡고 있음.
  - 중국은 광활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완제품 조립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, 한국은 여기에 부품 소재 및 장비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.
- 최근 10 여 년간 충남의 대외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, 대신 중국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
  - 2010년 기준으로 충남의 최대 수출국이 바로 중국이며, 두 번째는 홍콩임. 미국은 EU에 이어 충남의 4위 수출국
  - 충남은 중국과 가장 근접한 물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, 자동차, 전자, 석유 제품 등 주력 대중 수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.



○ 충남은 중국과 가까운 물리적 위치를 잘 활용하여, 대중 수출 기지 및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.

- 충남은 중국 경제의 핵심 지역인 중국 황해 연안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환황해권 요충지임

#### □ 저성장 시대, 환경 및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녹색 성장 동력 확보

○ 충남의 현재 주력 산업이 철강,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산업이기 때문에, 지구 전체 차원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 위기 상황이 닥쳐오게 된다면 현재 충남 산업구조가 취약성이 드러낼 수 있음.

○ 저성장 시대의 도래, 화석 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,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, 충남 내부에서 새로운 녹색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함

- 에너지 소비가 적고,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산업 중에서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함

- 태양열, 지열, 풍력 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충남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

○ 충남의 도시 및 지역 공간 구조도 가능한 탄소 발생 및 에너지 절감 구조로 개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#### □ 충남 서북부 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균형 발전 추구

○ 현재 충남 서북부권과 나머지 지역간 경제와 산업의 불균형이 심화

- 천안, 아산, 당진,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은 수도권 이전 기업 덕분에 급격한 성장하고 있는 반면, 나머지 충남 내륙 지방이나 남부 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

- 이로 인해 도내 수도권 인접 지역과, 나머지 지역 간 격차 문제 대두.

- 충남 내륙 지방이나 남부 해안 지역의 경우 기존 농업을 대체할 성장 동력 부재로 인구 유출 및 노령화 가속
- 서북부 지역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 및 발전 프로젝트 필요.

#### □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내 선순환 구조 확보

-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던 산업 기능이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경우, 성장의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성장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.
- 충남 북부 지역에 입지한 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(대학도 마찬가지) 으로 아직 충남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.
- 연구개발 기능이나 고급 서비스 기능은 충남에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에 잔류.
- 이로 인해 충남은 산업 생산에 특화된 채,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안정된 고용을 제공하는 연구개발 및 고급서비스 기능은 여전히 수도권에 의존.
- 충남 서북부 지역의 경우 산업 성장에 걸맞는 생활기반 시설이 취약해서 기업체 종사자들의 정착 의지도 낮음
- 산업 기능에만 특화, 주거 교육 문화 기능이 취약하며, 최근 급격한 난개발로 정주환경 및 생활의 질이 높지 못함.
- 충남에서 일하는 고급인력의 상당수는 충남에 정착하지 못한 채, 수도권에서 출퇴근.
- 이로 인해 충남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수준에 비해 1인당 소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. 즉 충남에서 생산한 부의 외부 유출이 발생함.
- 정주환경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확보가 필요

- 산업 기능 뿐만 아니라, 연구개발 기능, 서비스 기능, 주거 교육 문화 기능들이 함께 고루 성장할 수 있게, 그리고 산업체 종사자가 충남 지역 내에 거주할 수 있게 하여, 발전 효과가 지역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내부로 선순환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

## 2) 주요 전략

### □ 내포 신도시 조성의 긍정적 파급효과 극대화

- 내포 신도시 조성이 충남 발전의 실질적인 연결고리(Link City)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포 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고, 역류 현상 등 부정적 효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
- 내포 신도시 조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피해를 최소화하고, 인근 지역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내포 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기능 특화를 통한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
- 내포 신도시가 충남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,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
-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내포 신도시가 성장의 잠재력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.

### □ 서해안 축을 포함한 지역발전 축 및 거점의 다원화

- 천안-세종시-대전을 잇는 경부축과, 천안-아산-당진-서산을 잇는 서북부권역에만 산업과 인구가 집중하면서,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발전 축 및 거점의 다원화 전략이 필요.
- 서해안 축, 제 2 경부축, 금강 축 등 충남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다양한 지역 발전 축이 필요.

- 이중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서해안 축에 대한 충남 차원의 관심이 필요

#### □ 미집행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

- 충남의 핵심 개발 예정지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, 천안아산 KTX 역세권, 아산 신도시 2단계 개발 사업, 태안 기업도시,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등이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연 혹은 포기 상태에 있음
- 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 청사진은 이미 벌써 마련되었으나,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실제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- 충남의 경우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보다, 각 기업체의 개별적 입지 결정의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집행 지역 개발 사업이 상존
- 개별 입지에 의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도 미집행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가 필요

#### □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며 친환경적 지역개발 사업 추구

- 가능성이 희박한 무모한 개발 계획을 양산하기보다, 개발 필요성과 개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됨.
-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 미집행 지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,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등의 경우 계획의 대폭적인 축소와 수정 과정을 통해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함
- 개발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기존 개발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고, 자연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완벽한 보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

#### 4. 핵심 프로젝트 제안

##### 1) 내포 신도시 인구 유입을 위한 주변지역 산업단지 개발 사업

###### (1) 배경 및 필요성

- 2012년 말부터 충남도청 및 유관기관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포 신도시의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임.
- 현재 내포 신도시 개발 목표는 2015년까지 인구 5 만명, 2020년까지 인구 10 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, 저성장 상태의 지속 등으로 내포 신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투자 유치, 토지 및 주택 분양, 인구 유입 모두 쉽지 않은 상태임
- 내포 신도시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인구 유입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,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, 선 입주한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계속될 뿐 아니라, 도시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의 경영 압박이 예상됨.

###### (2) 주요 내용

- 내포 신도시 구역 내부의 자체 동력만으로 계획인구의 달성이 불가능 하므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필요.
- 내포 신도시의 2020년 계획인구 10 만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청 및 유관 기관 이전만 가지고는 달성 불가능
- 최소한 목표 인구의 절반 이상은 도청 이전과 무관한 새로운 고용창출을 통해 확보해야 함.
- 현재 내포 신도시 내부에 고용 창출을 위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나, 신도시 내부 지역은 단지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며, 목표대로 입주한다 하더라도 창출될 수 있는 고용 인원의 한계가 있음 (현재 약 5천명 정도로 예측)
- 내포 신도시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, 내포 신도시

주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기능 도입이 필요

- 현재 내포 신도시 주변 지역은 도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, 내포 신도시 유입 가능 인구가 별로 없음.
- 인근 홍성 및 예산 주민들의 신도시 입주를 유도하는 것은 기존 도시의 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
- 따라서 내포 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, 내포 신도시 자족성 가능 인구를 확보해야 함. 어느 정도 자족 가능한 인구 (내포 신도시 최종 목표 인구인 10만명 수준) 가 유입되어야, 추가로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나 교육 문화 시설의 입주가 가능
- 현재 충남 상황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 대안은 산업 단지 개발임.

○ 내포 신도시의 출퇴근 가능 지역에,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계획적 산업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

- 내포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해, 공해 업종 유치를 지양하고, 비공해 친환경 업종 위주로 유치
- 내포 신도시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건설
- 현재 추진 중인 충청남도의 상생산업단지 조성 정책 및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조성 정책과 연계 가능
- 현재 내포 신도시가 최첨단의 정주 환경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므로, 새로 개발될 산업단지 종사자들에게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음.

### (3) 기대효과

○ 내포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조기 활성화

- 내포 신도시가 충남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, 환황해권의 거점 도시로 자리

잡을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서 우선 인구 10 만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.

-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흡입력을 갖추어 경쟁력 있는 고용기반을 만들고, 이를 바탕으로 주택, 도시 인프라, 교육, 문화 시설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음.

## 2) 내포 신도시 광역권 발전 계획 수립 및 실행 사업

### (1) 배경 및 필요성

- 내포 신도시가 원래 목표대로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낙후된 충남 서부권의 활력을 높이는 지역생활권 중심 도시이자 신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
- 하지만 내포 신도시 조성 사업이 현재 내포 신도시 자체의 성공적 건설에만 국한되어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광역적 비전이 부족한 실정임
- 수도권 산업과 인구 유입을 위한 광역 정주권으로서 내포 신도시 광역권 육성이 필요
- 홍성과 예산 지역에서는 내포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감과 아울러, 기존 지역의 쇠퇴 혹은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음
- 내포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도시 환경의 질이 주변 지역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져 인근 소도시의 인구와 산업이 유입되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을 우려
- 최근 홍성과 예산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등, 이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공동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 모색이 필요.

### (2) 주요내용

- 내포 신도시 구역 뿐만 아니라, 인근 홍성군과 예산군, 나아가 서산과 당진을

포함한 내포 신도시 광역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, 인근 지역과 기능 분담 및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.

- 내포 신도시 광역권 전체가 하나의 대도시처럼 기능하게 하여,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흡입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
- 내포 신도시와 홍성, 예산, 서산, 당진 등의 광역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생성 및 보유 자원 공동 활용, 중복 투자 방지
- 내포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접근성 강화, 내포 신도시 광역권과 충남 및 국내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 SOC 구축 계획을 마련
- 광역적 생태 환경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자연 경관을 보전

### (3) 기대효과

- 내포 신도시 구역만이 아니라, 주변 지역을 포함한 내포 신도시 광역권 전체가 충남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, 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광역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됨
- 내포 신도시 조성 작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주변 지역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
  - 내포 신도시 조성 지역과 주변 인근 지역간의 화합과 동반 성장을 유도

## 3) 서해안 발전 종합 계획 수립 및 실행 사업

### (1) 배경 및 필요성

- 충남 서해안은 중국 및 수도권과 가까워서 산업입지로서 매우 우월한 조건임과 동시에, 뛰어난 자연생태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. (태안해안국립공원이나 서천 습지 등)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없어 한편에서는 난개발이 초래되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며,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의 잠재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



- 체계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인해 가로림만을 둘러싼 갈등 사안이 발생

- 서해안 지역 산업단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과 동시에, 보존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.

## (2) 주요내용

- 충남 서해안 지역을 산업용 개발 지역과 자연생태 보전지역, 해양관광 지역 등으로 구별하는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
- 비전과 전략사업 위주의 <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, (국토해양부 2010)>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실행가능한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, 정교화
- 아산만권, 군산장항권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충남의 핵심 도시권을 서해안 축을 따라 연계하는 전략 수립
- 대중국 무역의 전진기지가 될 거점 항구 및 주변 지역 개발
-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서 지역의 미개발 자원 활용 방안 강구

## (3) 기대효과

-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한황해권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강화에 기여
-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, 보전할 곳은 보전하는 장기적 관점의 서해안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

#### 4) 충남의 관문 항만 개발 사업

##### (1) 배경 및 필요성

- 충남 서해안은 중국 경제의 핵심 지역인 중국 황해 연안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환황해권 요충지임
- 최근 충남 및 충남 주변 지역의 수출입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대중 무역이 활발해 지면서, 충남권 항만의 물동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
- 충남의 수출입 규모에 비해 부산항, 인천항, 평택항 등에 비해 충남 지역 항만 개발 수준이 매우 낮음.

##### (2) 주요내용

- 당진항, 대산항, 장항항을 대중국 수출입 및 민간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
  - 당진항 : 황해자유구역 및 세종시의 관문으로 인근 평택항 수준으로 개발
  - 대산항 : 중국과 최단 거리 항만이라는 입지 이점을 활용한 국제여객항 조성
  - 장항항 :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인근 새만금 지역 및 군산항과 연계 개발
- 당진항, 대산항, 장항항을 지원하는 도로망 및 철도망, 기반 시설 및 배후 지원시설의 체계적 건설 추진

##### (3) 기대효과

- 대 중국 수출입 물류 비용 감소를 통해 충남 지역의 전반적인 입지 경쟁력 강화
- 항만 물류 산업 및 운송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지역 발전 동력 확보

## 5) 시군 연계 생태·문화·산업 관광 벨트 조성 사업

### (1) 배경 및 필요성

- 관광 산업은 청정 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
- 제조업 여건이 미흡한 충남의 남동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생태·역사·문화를 활용한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
-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이 입지한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 다각화 차원에서 산업 시설을 관광 자원화하는 산업 관광 코스 개발
- 한 지역의 관광 자원만으로는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관광 벨트 조성이 필요

### (2) 주요내용

- 충남 지역의 시군을 연계하는 다양한 테마와 유형의 관광 벨트 및 관광권역을 조성
  - 서해안 해양 관광 벨트 / 금강 수변 생태 관광 벨트 등 해안과 수변 관광
  - 장항선 문화 관광 벨트 / 1번 국도 노선 관광벨트 등 철도와 도로 노선 관광
  - 백제 문화 관광권 / 기호 유교 문화 관광권 / 내포 문화 관광권 등 전통 문화 관광
  - 삼성전자 천안 아산 공장 -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- 당진화력 - 대산공단을 잇는 첨단 산업 관광 등
- 유사한 관광 자원을 가진 충남의 지역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 관광 교통 수단을 개발
  - 충남도 및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광 협력 사업팀을 조직하여 공동 스토리텔링 개발, 지역 관광 축제 일정 조율

### (3) 기대효과

- 새로운 관광 테마를 발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이를 통한 수도권을 포함한 국내 관광객, 그리고 중국 및 일본 관광객의 유입 기대
-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시군 간의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상호 상생 협력과 시너지 효과 유도

## 6) 충남 소재 KTX 역세권 거점 개발 사업

### (1) 배경 및 필요성

- KTX 고속전철 망이 확충되면서, 교통의 요지인 KTX 역세권이 지역개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음
- 충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KTX 역사인 KTX 천안아산역 및 KTX 공주역의 역세권의 잠재력 활용 필요

### (2) 주요내용

- 천안아산역 및 공주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
- 천안아산역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느 곳과 쉽게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점으로, 주변에 탕정 산업단지, 천안산업단지 등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가 이미 집적되어 있음.
- 공주역은 논산시 및 세종시와 인접할 뿐 아니라, 충남 남부지역 및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임

#### < 천안아산 KTX 역세권 : 충남 연구개발 중심지>

- 천안아산 역세권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취약한 연구개발 기능의 허브로 개발
  - 현재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부족한 기능이 연구개발 기능임
  - 연구개발 기능의 선호 입지가 대도시 지향성, 쾌적한 주거환경, 대학과 연계 가능성, 산업 중심지와 근접 등을 요구한다고 할 때, 천안아산역세권은 충남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개발 입지가 될 수 있음
- 연구개발 기능 및 주거 기능, 교육, 문화 기능이 복합된 거점 지역으로 육성
  - 주거 기능, 문화 기능은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, 공공 및 민간의 연구개발 기능과 교육 기능을 유치하는데 충청남도의 역할을 집중.
- 이를 위한 선도 사업으로 차세대 복합 연구개발 센터 건립 사업 및 해외 유력 연구기관 투자 유치 추진
  - 자동차 ,디스플레이, 철강, 석유화학 등 충청남도 주력산업 및 IT · BT · NT · CT 등 차세대 융복합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연구개발 기능 확충

#### < 공주 KTX 역세권 : 충남 남부 지역의 문화 및 산업 중심지>

- 공주역세권의 경우 낙후된 충남 남부지역의 문화 및 산업 중심지로 개발
  - 공주역세권 주변의 충남 남부 지역은 충남 내에서 상대적 저발전 지역일 뿐만 아니라, 도청 이전으로 소외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
- 하지만 공주역세권은 공주, 부여, 전북 익산을 잇는 백제 문화권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백제 문화권 관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.
- 공주역세권은 대전시 및 세종시와 인접해 있고, 간선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시설들을 유치하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
  - 저공해 녹색산업, 인근 지역의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,

- 인근 지역과 연계된 문화 산업, 식품 산업 적극 유치



- 공주 역세권의 발전을 위해서, 세종시,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부여군 등 인접 지역과 연계 교통 체계 구축을 조속히 지원하여, 발전의 시너지 효과 공유
- 공주 역세권과 인접한 논산시의 육군 훈련소 및 국방과학 클러스터와 연계

- 천안아산 역세권 개발을 통해 충남의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 및 주거 문화 교육 기능 확충
- 공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세종시 출범에 따른 공주 지역의 지역 공동화 우려를 불식하고, 도청 이전에 따른 충남 남부 지역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거점 마련

## 7)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

### (1) 배경 및 필요성

-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현재 충남도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극히 부진
- 개발가능성이 없는 서산 지곡 지구는 이미 구역이 해제되었고, 당진 송악·아산 인주지구는 규모가 축소되었음
-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.

### (2) 주요내용

- 이미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현재의 지정 구역을 과감히 해제하고, 토지 가격이 싼 신규 대체 부지 물색
- 외국인 투자용지 공급, 산업단지 중복지정 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입지 경쟁력 강화
- 기존의 계획입지 중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고 입지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입지적 장점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
- 원형지 개발, 대항 개발 등 대안적 개발방식 도입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원가를 저감

### (3) 기대효과

-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로 원래 의도했던 대로 지역 발전의 국제적 거점 확보
- 장기 미집행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

## 8) 산업단지 주변 정주환경 및 산학연계 개선 사업

### (1) 배경 및 필요성

- 충남 지역의 경우 수도권 공장 유치 등으로 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, 교육, 문화, 환경 등 전반적 정주환경의 질이 낮아 산업체 종사자들의 지역 정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-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충남도는 민선 5기부터 생산·문화·업무기능이 복합된 이른바 「제3세대 산업단지」 조성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
- 지식경제부도 2010년부터 산업단지를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3터(일터, 배움터, 즐길터)가 어우러진 공간인 QWL(Quality of Working Life) 밸리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  - 이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, 기숙사형 오피스텔, 비즈니스센터 등을 확충
- 비슷한 맥락에서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
  - 산학융합지구는 2011년 첫 사업으로 3개 지역 (구미, 시화반월, 군산새만금)을 지정하고 국비를 지원

### (2) 주요내용

-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,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, 산업단지 내부 및 주변 지역의 주거, 교육, 문화, 의료 서비스의 양적, 질적 수준을 높임.
- 산업단지 인근 도시가 산업단지의 배후 서비스 중심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계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 확충
- 산업단지 내부 및 근처 지역에서 교육, 취업 및 R&D가 융합된 산학협력체계



를 구축하고,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

- 주변의 전문계 고등학교, 전문대학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의 산학 연계 지원

### (3) 기대효과

- 산업체 종사자가 충남 지역 내에 거주할 수 있게 하여, 충남에서 생산된 소득의 외부 유출을 방지 하고, 지역 경제와 소비의 선순환 구조 구축
- 산학 연계, 연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

## 9) 생태산업단지 조성 및 기존 산업단지 공원화 사업

### (1) 배경 및 필요성

- 충청남도의 현재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, 탄소 다배출 구조인 관계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의제가 강화될 경우, 산업 구조의 취약성 노출 우려
-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
- 충남 지역의 삶의 질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산업단지 및 신규 산업단지의 환경 오염을 최소화해야 함.

### (2) 주요내용

- 충남 지역에 새로 개발되는 산업단지 혹은 기존 산업단지 중 최소 2곳 이상을 생태산업단지로 조성
- 생태산업단지(EIP, Eco-Industrial Park)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, 폐기물 등을 다른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산업공생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산업단지를 뜻함
- 산업단지 내부 및 인근 주변 지역과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여 에너지

지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축을 도모

- 생태산업단지는 산업분야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가 적극 추진 중인 사업임

○ 충남 지역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공원화 사업 추진

- 충남 지역에서 환경 오염 정도가 가장 심한 산업단지부터, 환경 개선 사업 및 산업단지 공원화 사업 추진
- 산업단지 공원화 사업이란 에코디자인(eco-design) 개념을 적용하여 산업단지와 주변의 자연생태 및 경관을 조화시켜, 산업단지가 일종의 공원 같은 경관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.

(3) 기대효과

- 생태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공원화 사업을 통해 “산업단지-지역사회”의 호혜적 관계의 형성되고 환경오염은 줄고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

-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충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

10)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낙후 지역 성장동력 확보 사업

(1) 배경 및 필요성

- 충남의 경우 서북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계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의 쇠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.
- 금산, 논산, 공주, 부여 지역은 내포신도시로 도청 이전으로 인해 도청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소외감 발생
- 충남 내부의 지역 발전 격차 해소 및 도청 이전에 따른 소외감 극복을 위해

각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 재생 전략 및 사업 추진이 필요

## (2) 주요내용

- 제조업 유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의 경제 재생을 위해, 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여 작지만 알찬 성장 동력을 확보
- 충남 각 지역의 상황에 알맞는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지원
  - 일사량이 많은 지역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
  - 바람이 많은 지역에는 소규모 풍력발전
  - 발전소 인근 해안 지역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수생바이오매스 생산
  - 신개발 주거 지역의 경우 에너지 자립형 주택단지
  -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농산어촌 마을은 에너지 전환 마을 조성 등

## (3) 기대효과

- 지구환경 개선과 동시에, 에너지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
- 친환경적 가치를 살리면서 낙후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 성장 동력 확보